

공존, 채식으로 답하다

이상수

09월 18일. 태풍 '힌남노'가 전국을 강타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이기도 하지만 경로나 발생 지점, 발생 시기 등 이례적이라는 보도다. 이런 대형 태풍은 특히 더. 지난달에는 이례적인 집중 호우에 강남과 주안역 근처가 난리 났었다. 정말 기후변화가 심각한가 보다.

기후변화를 피부로 실감했을 때는 2020년도였다. 8월에 태풍 3개가 연달아 왔다. 침수 피해는 남 일로만 알았다. 내 방구석부터 조금씩 찬 빗물이 내 발에 수줍게 인사를 건네기 전까진 말이다. 불청객을 돌려보내자 이번엔 '환경 보호'라는 손님이 마음속에 살기 시작했다. 나조차 내 마음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 몰랐기에 공짜로 살게 해줬다. '환경 보호'라는 손님은 내가 잘 때 꿈속에서 나와 차라도 하나 보다. 어느새 꽤 많은 정보를 얻었고 실천하고 있다. 한번 점검도 할 겸 자기 고백해 보자

텀블러 들고 다니기, 분리수거 잘하기, 대기전력 차단하기 등. 이 정도는 모두 실천 중이다. 검색만 해도 나무를 심어주는 녹색 검색엔진 'ecosia' 사용하기. 이건 정말 유용하다. 검색으로 지식을 늘렸을 뿐인데 덕분에 나무 1000 그루 넘게 심었다. 정말 지식의 나무다. 유튜브 30분 시청이 1.6kg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유튜브를 줄이고 있던 차에 잘 됐다. 대중교통 이용은 차가 없으니 강제다. 건조기도 없고 에어컨도 히터도 없다. 생활이 원래 환경 보호하기 좋은가 보다.

작은 실천은 중요하다. 하지만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개인 소유 수영장을 소유해 물 낭비하는 삶을 살아오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다. 전용기가 있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만들지도 못한다. 환경 파괴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보호도 파괴도 주인공은 따로 있을 뿐일까. 에어컨을 끄고 커피를 마시며 주역들의 결투를 관람하는 기분이다. 왜 저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지 얼마나 더운지, 모른다. 이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여름은, 그저 찬란할 뿐이다. 나의 작은 실천은 정말 작기만 하여 큰 불편을 만들지 못하는 걸까. 만족도 불편도 없는 똑같은 삶. 시시하고 무료하다.

그래도 손님을 내쫓을 순 없는 노릇.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했던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몸에 밴 습관을 따라 비닐에 담지 말고 가져온 반찬통에 담아 달라 부탁드렸다. 옆에 있던 친구는 주의 깊게 보고는 비건임을 밝혔다. 건강과 환경을 위해 비건이 됐다 한다. 처음 봤다. 비건인 사람. 육식이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거기까지였다. 그 영역은 채식주의자만의 이야기라 생각했다. 변화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온다 그랬던가. 머리가 요동친다. 새로운 지평이 열림을 직감했다. 환경 보호에 대해 일깨워준 태풍이 내 머릿속에서 일어났다.

정보 수집은 손님이 있으니 어렵지 않았다.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 인구 증가로 식량부족으로 인한 기아 문제. 우리나라는 상승하는 집값,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 감자는 1kg에 130L의 물이 필요한 반면, 소고기 1kg에는 16000L의 물과 7~16kg의 곡물이 필요하다.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곡물은 2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다.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이다. 채식을 하면 하루에 4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고 우리 나라 모두가 일주일 채식을 하면 자동차 450만 대를 멈추는 효과다. 온난화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해 줄 것이다. 전 세계 경작지의 80%가 축산업에 사용된다. 부동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해결할 시간을 벌여줄 것이다. 채식은 환경 보호를 넘어 지금까지 한 행동보다 더 지구와 인류를 위한 행동인 것이다.

처음으로 샐러드를 해 먹었다. 그냥 화장품보다는 비건 화장품을 구입했다. 우유는 식물성 우유를, 마요네즈 또한 비건 마요네즈를 먹는다. 운 좋게도 텐더나 불고기도 식물성으로 나오는 시대다. 운 좋게 정말 편하게 채식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쉽게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덧붙여 음료는 물 낭비를 일으키니 생수를 마신다. 외식을 할 때면 치킨보다는 피자, 스테이크 피자보다는 고구마 피자, 유도를 한다. 지인, 친구들에게 넋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재미있다. 당연히 아직은 비건은 커녕 채식 지향인이라 하기도 어렵다. 회식 자리서는 고기를 먹고 계란도 먹는다. 하지만 그렇기에 재미있다. 타면 끝인 지하철, 뽐으면 그만인 콘센트가 아니다. 이건 평생의 도전 거리다. 드디어 찾은 것이다. 평생 따라다니며 불편하게 할 거리를. 사람들은 고통이라 부르겠지만 난 사랑이라 부르겠다. 난 기꺼이 식탁에 고기 대신 고민을 차리겠다 다짐한다.

슬럼프가 왔거나 성장이 끝났다 느낄 때 멈추지 말자.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그들만의 영역이라 생각했던 채식에서 해답을 봤듯. 전혀 다른 방식이나 분야로

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다. 환경 문제에 주역들은 따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후 위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발명품이 나와도, 과학적 발명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어도 사회의 변화로 직결되지 않는다. 노예제가 폐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문명의 발달이다. 노예는 먹이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지만 기계는 들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까진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었다. 그 문제 해결은 철학과 정치적 노력의 몫이었다. 오늘날의 인종차별, 성차별 문제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인종차별, 성차별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종차별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사람을 동물과 같은 선에 두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세상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의 고통이 동물의 고통보다 훨씬 소중하다.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무인도에 갇혀 사냥을 하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면 당연히 사냥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게다가 사람들과 사육, 도살로 고통받는 동물들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따로 떼어내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고양이, 강아지 학대 문제가 공장식 축산 문제에 눈 뜨게 해주듯 종차별주의 문제가 인종, 성차별주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물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대의 육식은 거의 대부분 고통과 환경 파괴를 동반한다. 결국 자연재해로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

아직도 망설인다.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았는데 이번만 식물성 우유보다 값싼 그냥 우유를 구입할까? 선크림이 떨어져 가는데 비건 선크림 말고 그냥 선크림 구입할까?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다. 우리가 치르고 있는 고기, 유제품 값이 비정상적으로 싼 것이다. 그에 따른 기후 위기에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나왔다. 싼 만큼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어쩌면 길을 잘 못 들었는지 모른다. 강해지고 성장하는 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는' 시스템은 그 외적인 팽창의 측면이나 내적인 모순의 측면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성장 중독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린다. 탄소 배출 없는 경제 성장 없고, 경제 성장에 후손의 행복은커녕 생존도 없다. 성장에 매몰된 삶을 근원에서 돌이켜야 한다. 능력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만드는 차이는 우리가 가진 공통점에 비하면 미미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공감과 유대란 능력은 공존에 초점을 맞추고 그건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성은 자연은 훼손시키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물권을



존중해 주고 지켜주는 삶. 자연 그대로 지켜주며 자연의 일부분으로 사는 삶.
그건 동물과 자연만을 위함이 아니다. 인간을 위해서이다.